

벽화 그리고 음악공연... '천사의 섬' 예술로 물들이다

신안군·한국예술학교, 비금·임자·팔금도서 23일까지 주민과 함께 '섬&아트 프로젝트'

신안군과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새로운 예술프로젝트로 공동추진하고 있는 '섬&아트 프로젝트 사업'로 인해 섬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예술가들이 직접 섬 주민들과 호흡하며 내놓는 프로그램과 예술 작품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신안군은 14일 "2013년 여름 하계특강과 벽화제작프로젝트가 비금도와 임자도, 팔금도 일원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재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비금도 이세돌기념관과 임자도 청소년수련관에 머물면서 신안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창작활동과 특강을 하게 된다.

비금도의 이세돌기념관에서는 지난달 말 한국예술종합학교 6개원의 재학생 30명이 참여한 창작예술캠프가 7일간 진행됐고,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는 팔금도에서 미술원 재학생 6명이 참여해 선착장과 면소재지 일원의 9곳에 벽화를 그려넣었다. <사진> 이 작업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팔금초교, 중학교 학생 및 주민들도 참여해 예술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임자도의 하계특강은 한예총 전통예술원 재학생과 김덕수, 최창주 교수 등 70여 명이 참여해 각 분야 교수들의 특

강과 실기연습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에는 지역민들을 위한 공연행사 임자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리기도 한다.

마지막 특강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비금 이세돌기념관에서 진행되며 전통예술원 한국음악작곡과 학생 및 임준희 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가 신안의 1004개 섬에 어떠한 변화를 줄지 주민들 역시 기대가 높다"며 "지금까지 없었던 이 같은 시도를 통해 신안의 또 다른 매력기 발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덩더쿵~' 장구 배워요

지난 10일 함평군과 함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한 '국악으로 행복 찾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문화가족 이동들이 장구를 배우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문화가족 이동들은 국악공연, 강강술래, 사물놀이 등을 체험하고, 남도의 문화예술 유적지와 어린이박물관, 김대중 노벨평화기념관 관람했다.

특히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생활 길라잡이와 기타, 드럼, 피아노 등 악기를 혼자서 배울 수 있는 강좌 등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는 연령·계층별 이용률을 고려해 최선전자책 287점 및 유아용 '동화 속 미술여행',

해남군립도서관 전자도서관 인기

전자책 8000여점 구비 기타·드럼 등 강좌도

해남군립도서관이 운영하는 전자도서관이 인기다.

해남군립도서관 전자도서관은 지난 2003년부터 구축해 현재 8000점에 달하는 전자책과 다양한 주제분야의 학습콘텐츠로 구성된 군 단위 도서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생활 길라잡이와 기타, 드럼, 피아노 등 악기를 혼자서 배울 수 있는 강좌 등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는 연령·계층별 이용률을 고려해 최선전자책 287점 및 유아용 '동화 속 미술여행',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의 하버드 특강-정의', 저자가 직접 책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 서비스 '북리딩' 등 학습콘텐츠 3종을 추가로 구입하기도 했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로 전자도서관의 이용률이 날로 높아져 가는 가운데 지난해 전자책은 총 5809권이 대출됐으며 문학, 자기계발, 경제·경영서의 이용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도서관은 해남군립도서관 독서회원으로 가입하면 군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홈페이지(<http://lib.haenam.go.kr>)에 접속하거나 전화(061-530-5890~1)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목포서 수상레포츠 체험마당

17일 평화광장 앞바다

"2013년 대한민국 수상레포츠 체험마당"이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목포 평화광장 해상에서 펼쳐진다.

이 행사는 전라남도, 목포시가 주최하고, 대한레저스포츠협회가 주관했다.

시는 이 체험행사에 전국의 수상레포츠 동호인, 관광객, 시민 등 1000여명이 참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체험마당을 개최하게 된 배경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수상 레저스포츠를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동북아 해양관광레저중심도시 목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체험종목은 바나나보트, 팽공보트, 모터보트, 카약, 수상자전거, 열기구 등 6종으로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무료로 진행된다.

체험시간은 17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6시이고, 18일에는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까지다. 부대행사로 평균시속 200km 직선 주행과 선회 시범을 하는 제트베이터 시범도 선보인다.

시는 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해양음악분수 공연 시 행사 홍보문자를 보내고, 평화광장 주변 및 공중화장실 청결, 평화광장 주변 및 공중화장실 청결, 평화광장 앞 수변 부유물 제거, 교통질서 유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해양레저스포츠를 통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과 해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무료 체험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전북



정읍 마을 기반형 '태산풍류공동체' 창업식

정읍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배출된 마을 기반형 창업공동체인 '태산풍류공동체'가 지난 13일 창업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 창업식에는 김성기시장, 김승범시회의회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태산풍류공동체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했다.

태산풍류공동체는 앞으로 칠보면 일대 태산선비문화권역을 중심으로 단기체험(2시간 이내) 및 1박2일 체험교실, 소규모 현장테마학습프로그램, 2박3일 오피니언 문화탐방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또 메주와 된장, 간장 등 전통식품

과 공방용품 만들기 체험 및 판매와 함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무성서원(칠보면 무성리 원촌마을 소재)일대에서 '나만의 특별한 맞춤 예식 전통혼례'도 진행한다.

유연희 대표는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체험객들이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산풍류공동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인 태산선비문화권역개발사업 지구의 사업단으로, 지난해 정읍시민창안대회 부리단체에 선정됐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희귀식물 풍란 활용 석부작 만들기 교육

정읍농기센터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3일 자생화교실 교육생 40여명을 대상으로 희귀식물인 풍란을 활용한 석부작 만들기 교육을 가졌다.

기술센터는 14일 "최근 정서순화와 일상 생활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문화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 기형적으로 생성된 화산석에 풍란을 붙여 자연의 멋스러움과 여유를 느끼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풍란은 다른 난과 달리 착생란으로, 풀이나 나무에 다채로운 연줄이 가능하고 주악이나 아파트 등에서 손쉽게 키울 수 있어 관상용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매월 운영되는 자생화 교실은 우리 꽃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의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기여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 박차

33만㎡ 에 2015년까지 214억 투입 郡, 10월 지정승인후 하반기 착공

부안군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14일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농공단지 지정승인받은 뒤 올 하반기 중에 착공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제3농공단지는 행안면 역리의 32만9000㎡ 규모 면적에 오는 2015년까지 총 21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될 예정이다.

이 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업종을 주요 기업으로 유치하고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의 입주기

업간 기술 및 유기적 협력체계도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굳은 전망하고 있다.

제3농공단지는 현재 농공단지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를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조성공사를 시작, 오는 2015년 이후 본격적인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단지의 위치가 국도 23호, 30호선 4차선 확장도로와 인접해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부안 나들목과 5km 거리에 있

는 등 물동량 운반 수송에도 매우 뛰어난 교통인프라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다 부안읍과의 거리가 차량으로 5분, 도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업체의 인력수급에도 용이하다.

또 이곳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취득·등록세 100%감면, 재산세 5년간 50%감면,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며 '부안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투자기업 보조금 지급 등 기업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12일 행안면 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합동설명회를 가졌다. /부안=정재용기자 jiv0681@



동자개야 잘 자라거라

유숙이 완만하고 바닥이 모래나 자갈인 곳에 서식하는 어종으로 3년 정도 성장하면 몸길이가 15~17cm까지 자라는 대표적인 민물고기 중 하나다.

고창군은 지난 13일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토산어종 보호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고창천을 포함 관내 5개 수면에 동자개 6만6080마리를 방류했다. 동자개는 유숙이 완만하고 바닥이 모래나 자갈인 곳에 서식하는 어종으로 3년 정도 성장하면 몸길이가 15~17cm까지 자라는 대표적인 민물고기 중 하나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kwangju.co.kr

단신

남원시, 금동 주민센터서 이동시장 운영

남원시는 지난 13일 금동 주민센터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이동시장을 운영했다.

이날 이동시장에서는 금동 통장 등 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지역 현로 5분, 도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업체의 인력수급에도 용이하다.

또 이곳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취득·등록세 100%감면, 재산세 5년간 50%감면,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며 '부안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투자기업 보조금 지급 등 기업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12일 행안면 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합동설명회를 가졌다. /부안=정재용기자 jiv0681@

레 실시돼 모두 92건의 사업이 건의됐으며, 이 가운데 즉시 해결된 사업은 20건, 추진중인 사업은 18건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시는 현장체험 3회, 사회단체 등과의 간담회 47회, 모정간담회 643회를 추진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kwangju.co.kr

법무부 정읍관찰소 '내고장 문화유산 탐방'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지난 13일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위원 10명과 보호관찰 청소년 15명이 함께한 '내고장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체험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내 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

을 답사하는 시간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동시에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 프로그램 참가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전북 부안군 소재 부안청자박물관을 비롯해 내소사, 채석강 등을 탐방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민의 장' 후보자 내달 17일까지 추천

순창군이 제51회 순창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순창군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안정과 발전에 공이 큰 사람에게 '2013년 순창군 군민의 장'을 수여한다.

군은 이와 관련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0일간 군민의 장 후보자를 추천받겠다고 밝혔다.

선발분야는 문화장, 공익장, 산업

근로장, 애항장, 효열장, 환경장, 체육장 등 7개 분야로 각 분야별 1명씩이다. 후보자 자격은 순창군 출신자, 공고일 기준 5년이상 순창군에서 거주한 주민, 17살 이상 70살 이하인 자, 단 체·기업체·기타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으면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19회 인월제... 면민 노래자랑 등 다채

인월이라는 지명을 갖게 된 역사를 되새기고, 인월면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19회 인월제가 14일 인월면체육공원 상징탑 일원에서 개최됐다.

인월제는 인월면발전협의회와 인월면에서 공동 주관하며 인월제례와 체육행사인 율놀이, 면민 노래자랑

등이 다채롭게 열렸다. 인월제는 고려 우왕 6년(1380) 이성계 장군이 이끄는 왜구 토벌군의 싸움에서 날이 어두워지자 기도로 밝은 달을 끌어올려 황산대첩을 이뤘으며, 그로 인해 인월(인월)이라고 부르게 된 지명 유래를 기념하는 제사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